

금호타이어 노사분쟁 4개월만에 종식

조합원 투표 54% 찬성으로 가결 ... 9월16일 2009년 임금협약 조인식

금호타이어의 노사분쟁이 4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금호타이어는 9월16일 낮 12시 광주공장에서 노사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진다.

5월11일 노사교섭위원 상견례로 시작된 2009년 임금협상은 4개월여 동안 24차례의 교섭 끝에 9월5일 잠정 합의하고, 9월12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54.2%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9월16일 조인식을 끝으로 2009년 임금협상이 종료되며 앞으로 장기간의 쟁의행위에 따른 후유증 극복과 실추된 고객 신뢰 회복, 노사 합의사항 실천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16>